

##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

손진희(孫鎭熙)\* · 김안국(金安國)\*\*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환경과 심리적 과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특히 심리적 과정환경을 심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직접적인 교육개입과 관련된 부모관여 변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간접적으로 학생의 자아개념과 자기학습량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도에 수집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수는 중학생 1,528명, 인문계 고등학생 1,224명이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고생 모두에서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부모-자녀관계, 부모관여, 자아개념, 자기주도 학습량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보다 학업성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 중 부모관여는 중고생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자기학습량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섯째,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자기학습량은 중고생 모두에게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가 고등학생보다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 가정환경, 부모관여, 부모-자녀관계, 자아개념, 자기학습량, 학업성취

\*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조교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I. 문제제기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정변인<sup>1)</sup>은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정의적, 인지적 발달에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도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강정구, 1986; 김일혁, 2005; 김재철, 2004). 그러나 학업성취에 관련한 지위변인은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교육적인 함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변인 중심리적 과정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많은 연구들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 역시 학업성취와 많이 관련되며,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업성취에 지위변인보다 의미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주동범, 1998; 김영희, 2002; 김일혁, 2005; 윤경희, 2001; 윤경희와 김경희, 2003; 한충효, 1984; 황혜자와 최윤화, 2003; Dave, 1963; Kellaghan, 1977; Simpson & Troost, 1982). 하지만 가정의 지위변인과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일관적인 연구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관관계연구들로서 다양한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방법론을 통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김일혁, 2005; Gonzalez-Pianda, Nunez, Gonzalez-Pumariega, Alvarez, Rocés, & Garcia, 2002).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은 가정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다양한 매개변인을 투입시켜 변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고, 가정환경 변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 및 매개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심리적 과정변인은 부모-자녀와의 심리적 관계양식 변인과 자녀의 학습활동에 직결되는 부모의 관여 변인이었다. 하지만, 이 두 변인들은 각기 따로 혹은 혼합되어 학업성취 연구에 사용되어왔다. 심리적 과정변인은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심리적 관계양식과 부모가 학업에 직접 관여하는 관여변인을 함께 과정변인으로 투입하여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 어떤 경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정변인은 다양하게 구별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환경과 심리적 과정환경으로 대별된다. 본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환경은 부모학력, 소득, 직업 등으로 구성된 환경을 뜻하며, 심리적 과정환경은 부모의 자녀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 정서적 지지, 나아가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부모가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규율, 시간투여 등을 의미한다.

한편, 가정환경 변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정환경 변인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습자 개인특성 변인들이 있다. 학습자 개인 특성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변인 중 하나가 자아개념이다. 자아개념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연구들(Hansford & Hattie, 1982; Marsh, 1990; Shavelson & Bolus, 1982)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Byrne, 1986)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아개념은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양육과 같은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직접 받아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희, 2003; 윤경희, 김경희, 2003). 하지만 지위변인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윤경희, 2003)을 고려할 때 가정변인과 자아개념을 함께 고려한 학업성취에 대한 추가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업성취에 관련되어 학습자가 공부에 투여하는 자기학습량 변인이 중요하다. 최근 공교육의 위기와 맞물려 사교육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에 투여한 시간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들이 학습시간량과 학업성취의 긍정적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 중 일부는 학습시간량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어(김일혁, 2005)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학교 혹은 학원 선생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기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학업성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변인들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확인된다면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 부모나 교육자들에게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을 부모의 지위변인과 심리적 과정변인으로 구분하고, 특히 심리적 과정변인을 심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직접적인 교육개입과 관련되는 부모관여 변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들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자기학습량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연구대상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단계에 따라 어떻게 교육적 개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부모의 지위변인이 부모와의 심리적 과정변인과 개인특성인 자아개념과 자기학습량을 통해 학업성취에 전달되는 과정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측정될 수 있다. 지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 자아개념 및 자기학습량의 매개적 역할이 밝혀진다면 학업성취에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과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업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변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변인과 학업성취 사이에 심리적 과정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주는지, 심리적 과정변인 중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부모 관여 변인이 학업성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생의 자아개념, 학업성취량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가 중·고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의 지위변인과 학습자의 학업성취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강정구, 1986; 김재철, 2004; 노국향, 최미숙, 최승현, 박경미 및 신동희, 2001; 성기선, 1997; 윤경희, 2003; 허형, 황인창 및 황의록, 1974; Ma & Klinger, 2000).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허형 등(1974)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변인(문화시설, 부의 학력 및 직업), 심리적 환경(친애적, 자율적), 과정변인(아동에 대한 관심도, 학업지도) 중 물리적 변인이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김재철(2004)은 부모의 지위변인이 수학적 성적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25로 가족간의 상호작용 효과인 .16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몇몇 연구에서 지위변인은 매개변인을 설정하고도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철, 2004; 윤경희, 2003; Ma & Klinger, 2000; Crane, 2001). 하지만, 지위변인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연구 등(김영희, 2002; 김일혁, 2005)도 있어 지위변인과 학업성취 간에 매개변인의 효과 및 지위변인의 직접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부모의 지위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와 경로를 보다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이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위변인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변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주동범, 1998; 김영희, 2002; 김일혁, 2005; 김재철, 2004; Brody, Stoneman, & Flor, 1995; Crane, 2001). 또한 연구 결과들은 어떤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의 크기나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의 지위변인 외에 심리적 과정변인이나 개인의 정의적 특성 요인 등이 학업성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또한 지위변인을 매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이 대두된 점도

심리적 과정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연구를 활발하게 촉진시켰다. 지위변인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교육적 함의가 제한되므로 많은 교육학자들은 지위변인과 같은 외생적 효과 이외의 심리적 과정변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학습에 대한 영향이 밝혀지면,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업성취에 상당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주동범, 1998; 김영희, 2002; 김일혁, 2005; 문은식과 김충희, 2003; 윤경희, 2001; 윤경희와 김경희, 2003; 한충효, 1984; 황혜자와 최운화, 2003; Crane, 2001; Dave, 1963; Hoover-Demosey, Battiato, Walker, Reed, DeJong, & Jones, 2001; Kellaghan, 1977; Simpson & Troost, 1982). 예컨대, 한충효(1984)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압력, 언어모형 등과 같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과 학업성취 간에 .77의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김일혁(2005)은 수학적성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모의 지위변인(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부모관여라는 심리적 과정변인을 매개로 하여 수학적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모관여 변수가 지위변인보다 수학적성에 미치는 총 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윤경희(2001)는 종단적인 연구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떤 언어모형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후일의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심리적 과정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Crane(2001)도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을 통제하고도 '이유시기'와 '책 읽어주기'와 같은 심리적 과정변인이 수학적성에 큰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그 외, 외국의 연구로서 Hoover-Dempsey 등(2001)은 학생이 숙제를 하는데 있어 부모관여에 대한 여러 연구를 검토한 후, 부모의 숙제 관여 행동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바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심리적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의 연구 결과들은 교육적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업성취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윤경희, 2003), 직접효과가 없다는 연구(Gonzalez-Pienda 외, 2002) 등도 있어 심리적 과정변인을 매개하는 추가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연구 대상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심리적 과정변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은 심리적 과정 변인이 단독으로 학업성취의 예측변인으로 사용되었거나 혹은 매개변인으로 사용되었던 점, 나아가 하위요인들을 무엇으로 설정하였느냐에 따라 각기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예컨대, 김일혁(2005)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관여로 대표될 수 있는 내용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양육태도, 문화체험이나 대화빈도, 가정규율, 언어압력, 자녀

에 대한 높은 포부수준,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학습활동에 대한 격려와 토론, 학교활동에의 참여 등 매우 다양하였다. 그동안 심리적 과정변인으로 사용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자녀관계 양식을 보여주는 연구들(김영희, 2002; 윤경희, 2003; 황혜자와 최윤화, 2003)과 부모가 학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관여 변인들이 각각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김일혁, 2005; 김재철, 2004; 문은식과 김충희, 2003; 주동범, 1998; Gonzalez-Pienda et al., 2002), 이 두 변인들을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거나 각각 나누어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Brody et al., 1995; Coleman, 1988; Deslands, Royer, Turcotte, & Bertrand, 1997)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Coleman(1988)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가 표현한 사회적 자본은 부모관여와 부모-자녀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띤 용어였다. 각각의 경우 모두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고려될 때 학업성취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보다 심리적인 변인과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이나 규율제공, 자녀에 대한 포부 같은 학습에 관여하는 변인을 구별하여 이들 변인들이 학업성취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밝혀진다면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경희, 2003; 김광웅과 문수경, 2005; Bornstein & Bradley, 2003, 김광웅과 문수경, 2005재인용; Brody et al., 1995), 부모관여 변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일혁, 2005; 김재철, 2004; 김충희, 2003; Brody et al., 1995; Crane, 2001; George & Kaplan, 1998). 또한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부모의 관여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교육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영희, 2002).

이상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요약하면, 가정환경 변인 중 지위변인은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인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관여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 할 수 있다.

## 2.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아온 것 중 하나가 자아

개념이다.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이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다는 것이다(윤경희, 2003; 윤경희, 김경희, 2003; Purkey, 1970) 특히 자기에 대한 개념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박아청, 1998)을 고려할 때 자아개념에 자기인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등의 여러 가지 자아를 나타내는 개념을 포함한다면 자아개념과 학업과의 관계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병두(1989)가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258(효과 크기=.534)이었다. 자아개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과 심리적 과정변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과정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고(공인숙, 1989; 양혜승, 1973; 윤경희, 2003; 윤경희, 김경희, 2003; Coopersmith, 1967), 부모의 관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Pienda 등, 2002). 부모의 수용적이고 따뜻한 양육방식이나 부모가 학업에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 관심의 양과 질은 자녀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홍승희(1999) 역시 과정변인 중에서도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이 자아개념과 가장 크게 관련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자아개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다룬 윤경희와 김경희(2003)는 자아개념이 부모의 지위환경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위변인은 자아개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혹은 정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송인섭, 2000)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윤경희 2003) 자아개념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에 비추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요약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에 영향을 주고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는 다시 학생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 3.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투여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학업성취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학업성취와 학습 투여 시간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Frederick과 Walberg(1980)는 둘 간의 관계를 연구한 34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들이 .13에서 .71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두 변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구병두, 1989, 재인용). 보다 최근 연구로는 국가교육중단 조사 자료를 통해 수학과 과학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분석한 Singh, Granville 및 Dika(2002)는 8학년들의 수학과 과학성적에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숙제를 하는 데 사용한 공부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공부시간은 수학과 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동기나 과목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적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학업성취와 학습투여 시간 양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TV 시청에 대한 관여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정영민(1984)은 부모가 TV 시청과 학업성취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TV 시청에 대한 규제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Keith와 Keith(1993) 역시 부모가 주중에 숙제와 TV에 사용한 시간에 관여함으로써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중에 숙제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TV를 덜 시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를 높인다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간 관여 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김일혁(2005)은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0 한국 자료에 나타난 수학 공부시간을 변인으로 하여 수학성적에 대한 공부시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수학성적과 공부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에서 수학공부시간은 '일주일에 사용하는 수학공부 시간'이어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 학원이나 과외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학습시간으로 혼자서 공부한 학습 시간과는 다르다.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한 타율적인 사교육에 대비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Marlone & Lepper, 1995). 내재적 동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과제에 투자하는 자유시간의 양'과 같은 개념도 포함한다(김아영, 조영미, 2001)고 할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큰 사람들은 과제에 집중할 의욕과 실제적인 시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와의 관계를 볼 때 자아개념과 특히 자율적으로 학습에 투여하는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에 비추어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요약하면, 부모의 사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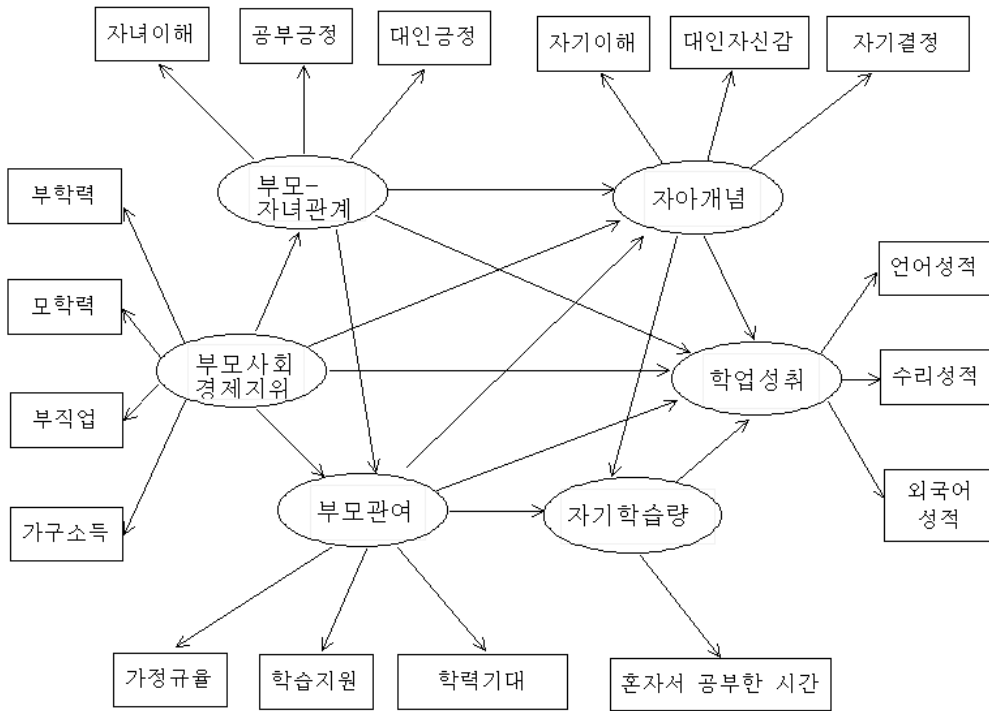


제적 지위변인이 부모관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관여는 학생의 공부에 투여하는 시간인 자기학습량에 영향을 주고 자기학습량은 학업성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의 학업성취는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이 자기학습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학업성취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 4. 연구모형의 설정

학생의 가정배경과 자아개념, 그리고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의 성적은 자기학습량, 자아개념, 부모관여,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기학습량은 내재적 요인인 자아개념과 부모관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자아개념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관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부모관여는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가정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학습량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확립된 논의가 없어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변인으로 가정하며, 가정의 부모-자녀관계, 부모관여, 학생의 자아개념, 자기학습량 등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변인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모형에서 타원안의 변인들은 잠재변인들이며, 네모안의 변인은 실제로 관측된 변인들이다. 이외에 지능이나, 사교육, 학교변인 등과 같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가정 배경적 요인과 자아개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량이 학업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는 본 연구가 학업성취 모델을 미리 설정하고 관련 변인들을 탐구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 간 관계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도에 수집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자료로 약칭함.)' 1차년도 자료이다. KEEP 자료는 중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2,000명씩 표집 되어, 전체적으로는 6,000개의 관측치를 갖는 자료이다. KEEP 자료는 이전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와는 달리 가구조사와 학교조사를 병행하여, 가정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및 부모의 학생 이해에 관한 설문이 이루어졌고, 학교의 담임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평가와 교무담당선생님 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중학교 3학년생의 자료와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학생의 가구특성 및 부모의 학생 이해 변인 등을 가구조사 자료에서 가져왔고,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알기 위해 담임선생님의 학생평가 자료를 가져와서 학생 자료에 합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을 중요하게 검토하기 위해 양부모가 있는 학생들의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학생의 보호자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에서 매우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정의 심리환경의 배경이 되는 부모 존재의 배경을 동일하게 하고자 부모가 동시에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의 관측치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에 결측이 있는 관측치를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중학생 1,528명, 인문계 고등학생 1,224명이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위변인은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가정의 월소득을 근거로 하였다. 각각의 영역에 다음과 같은 점수를 부여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각각 대입하였다.

외생잠재변인으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들을 구성하는 관측변인 및 그 점수 부여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직업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들로 포함될 수 있으나, 직

<표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 및 점수 부여

	구분	점수
부학력, 모학력	미취학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	6
	대학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9
부직업	단순노무직	1
	조립 및 장치조작원	2
	기능원, 판매원, 농업어업숙련직	3
	서비스직	4
	사무직, 군인	5
	준전문가 및 기술공	6
	전문가 및 기술자	7
	일반고위관리자	8
가구소득		로그 월가구소득

업을 갖는 경우와 주부인 경우가 부모-자녀관계, 부모관여, 자아개념,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을 구성하는 요인에 넣지 않았다. 가구소득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여서,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KEEP 자료로부터 ‘자녀이해’, ‘공부긍정’, ‘대인긍정’의 3개의 구인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이해’는 6문항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업 및 성적, 친구, 친한 친구의 부모, 학교생활, 생활습관, 개인적 고민’과 관련된 사항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공부긍정’은 4문항으로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에 성실한지, 꿈이 있는지, 머리가 좋은지’를, ‘대인긍정’은 3문항으로 자녀가 ‘춤, 노래, 유머 등이 얼마나 있는지, 친구관계가 좋은지, 리더십이 좋은지’ 정도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나타낸다. 3개의 구인은 전체 13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 부하량 .40이상을 나타낸 문항을 중심으로 추출한 결과이다. 대인긍정 하위 문항 중 ‘친구관계가 좋은지’가 공부긍정 요인에 .40 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냈으나 내용타당도를 볼 때 대인긍정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부모-자녀관계 변인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0이었고, ‘자녀이해’는 .73, ‘공부긍정’은 .66, 대인긍정은 .64로 나타났다.

## 3) 부모관여

부모관여 변인은 ‘가정규율’, ‘학습지원’, ‘학력기대’ 3개의 구인으로 구성하였다. 변인 산출을 위해 일차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관여로 거론된 문항들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으로 KEEP 자료에서 부모관여로 볼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가정규율’ 4문항(TV 시청량 및 내용, 컴퓨터 사용시간 및 내용 규율), ‘학습지원’ 3문항(취학 전 책 읽어주기, 초등, 중등 숙제 도와주기), ‘학력기대’ 2문항(자녀에 대해 희망하고 전망하는 학력)으로 결정하였다. 부모관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고, ‘가정규율’은 .86, ‘학습지원’은 .53, ‘학력기대’는 .78로 나타났다. ‘학습지원’ 구인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선행 연구 대부분이 자녀의 학습지도를 부모관여의 핵심 구인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 4) 자아개념

자아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KEEP 자료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평가한 총 12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신의 여러 생활에서 나타나는 면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었는데, 이 문항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재는 문항들이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해보았고, 그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3개의 구인이 산출되었다. 자아개념의 하위 구인인 '자기이해'는 '꿈이 있다, 잘하는 것을 안다, 좋아하는 일을 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를, '대인자신감'은 '춤, 노래, 유머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친구관계가 좋다'를, '자기결정'은 '공부 잘함, 학교생활 성실, 결정 잘함, 실천 잘함, 괜찮은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자아개념 변인 전체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고, '자기이해'는 .76, '대인자신감'은 .67, '자기결정'은 .65로 나타났다.

#### 5) 자기학습량

자기학습량을 활용하기 위해 KEEP 자료에서 '과외, 학원, 학교공부 등을 제외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쟀 하나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기학습량의 경우 혼자서 공부한 시간의 단일 변수로서 추정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 성적이 단일 변수로 추정되고 있어 신뢰도를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병렬(2005, pp. 415-417)에 따라서 혼자서 공부한 시간과 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0.8로 가정하고 오차분산을  $(1-0.8) \times (\text{분산})$ 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된 혼자서 공부한 시간의 오차분산은 중학생의 경우 0.3926, 고등학생의 경우 1.0161이었고, 이를 구조모형에 반영하였다.

#### 6) 학업성취

학업성취를 활용하기 위해 KEEP의 자료에서 교사가 제공한 중학교 전교 석차성적과 고등학생의 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 성적을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성적이 단일 변수로 추정되고 있어, 신뢰도를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병렬(2005, pp. 415-417)에 따라서 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0.8로 가정하고 오차분산을  $(1-0.8) \times (\text{분산})$ 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된 중학생 성적의 오차분산은 1.5376이었다.

중학생의 성적은 백분위 성적이 조사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반, 계열, 전교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이에 중학생의 성적은 전교 기준의 백분위 성적을 역으로 점수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실제의 분석에서는 여타 변인들과 척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1/10로 비율적으로 줄

인 점수를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성적을 학교 성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학교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학교효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목표를 둔 것보다 매우 복잡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도시와 농촌지역이든 지역 내에서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자연스럽게 분류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연구 방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통제하지 않았다. 학교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여타 변인들과 척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1/10로 비율적으로 줄인 점수를 사용하였다.

### 3. 자료처리

연구모형에 명시된 각각의 잠재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일반화최소제곱법을 사용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사교회전방식으로 회전하였다. 요인분석 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 신뢰도 개념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선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일관성 계수를 구하였다.

학업성취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 LISREL 8.5 Win Program을 이용하였고, 공분산행렬을 사용하였다. 모수추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하였다.

## IV. 결과

### 1. 모형 적합도 평가

Jöreskog와 Sörbom(1993)은 구조분석의 검증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는데, 첫째, 단일모형만으로 통계적 검증 과정을 거쳐 해당 모형을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것, 둘째 경쟁 가설을 몇 가지 가정하고 통계적 검증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는 것, 셋째, 가정 모형을 기초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모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가지고 모형을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가정 모형의 통계적 값들에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좋게 하면서 간명한 모형을 구성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추정치들은 이론 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잘 합치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lt;표 2&gt; 최종 모형의 적합도

	Chi-Square	df	P-value		
중학생	265.16	74	.00000		
고등학생	308.56	104	.00000		
	NNFI	CFI	RMSEA	GFI	AGFI
중학생	.96	.97	.041	.98	.96
고등학생	.95	.97	.040	.97	.96

이다. 구조모형 추정의 경우 다양한 적합도 추정치들이 제공되나 본고에서는 김일혁(2005)의 논의에 따라 NNFI, CFI, RMSEA 값을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수로 사용하였다. 큰 표본에 있어서 NNFI, CFI의 값은 0.9 이상인 경우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RMSEA의 값이 0.05 이하이면 근사한 합치, 0.08 이하이면 적당한 합치, 0.10 이상이면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처음에 가정되었던 지위변인, 자기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관여가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그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서 그 경로를 제거하여 간명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정지수에 근거해서 관측변수들의 오차항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허용하였다<sup>2)</sup>.

모형수정의 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모형의 적합도가 다음의 표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GFI와 AGFI의 값이 높고, NNFI와 CFI의 값은 모두 .95를 넘고 있어 모형이 자료에 잘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MSEA 값도 .041과 .040으로 양호한 추정치로 평가되며,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모수 추정 결과

모수의 추정결과를 <표 3>과 <표 4>로 정리하였다. 추정 결과는 모두 비표준화 계수값이며, 이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가정의 지위 및 심리적 변인, 그리고 자기학습량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표본들 간에 비교가 가능한 비표준화 계수값을 보고하였다. <표 3>에서 모수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2) 중학생의 경우 자녀이해와 학습지원, 자녀이해와 공부긍정, 성적과 공부긍정, 자기이해와 대인긍정, 성적과 자기결정, 대인자신감과 대인긍정, 대인자신감과 자기이해, 부학력과 모학력, 부직업과 가구소득의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녀이해와 학습지원, 가정규율과 학습지원, 자기이해와 대인긍정, 대인자신감과 대인긍정, 대인자신감과 자기이해, 부학력과 모학력, 가구소득과 부직업의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lt;표 3&gt; 측정모형의 회귀계수와 t 값

관측변인	←	잠재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계수값	t 값	계수값	t 값
자녀이해	←		.94	18.51***	.85	14.37***
공부공정	←	부모-자녀관계	1.00		1.00	
대인공정	←		.42	12.52***	.56	15.27***
가정규율	←		.41	9.98***	.26	3.62***
학력기대	←	부모관여	1.00		1.00	
학습지원	←		.61	14.74***	.66	3.64***
자기이해	←		.59	12.08***	.54	9.26***
자기결정	←	자아개념	1.00		1.00	
대인자신감	←		.37	11.25***	.38	8.80***
자기학습시간	←	자기학습량	1.00		1.00	
성적	←		1.00			
언어성적	←	학업성취			1.14	22.18***
수리성적	←				1.00	
외국어성적	←				1.47	22.69***
부학력	←		1.00		1.00	
모학력	←	부모사회경제지위	.80	28.97***	.77	23.79***
부직업	←		1.40	17.36***	1.27	12.48***
가구소득	←		.34	17.52***	.30	12.54***

\*\*\*  $p < .001$ (양측검정)

유의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각각의 잠재변인들은 명시된 경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잠재변인들은 측정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모든 회귀계수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구조모형에 따라 잠재변인들 간에 구조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이다. 표의 결과를 보면 우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차이가 나는 점은 학업성취 변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관여, 자기학습량 이외에 부모-자녀관계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자녀관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위변인과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부모관여 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2$ 값도 높아 부모관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위변인과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자아개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아개념은 자기학습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업성



&lt;표 4&gt; 잠재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	
		설명 잠재변인	R <sup>2</sup>
부모-자녀관계	= 0.93*부모사회경제지위 (12.22***)		0.14
부모관여	= 0.17*부모-자녀관계 + 0.82*부모사회경제지위 (8.93***) (15.20***)		0.72
자아개념	= 0.35*부모-자녀관계 + 0.31*부모사회경제지위 (9.17***) (3.57***)		0.16
자기학습량	= 0.25*부모관여 + 0.14*자아개념 (6.66***) (7.05***)		0.16
학업성취	= 1.04*부모관여 + 0.30*자기학습량 (13.76***) (5.42***)		0.31
		고등학생	
부모-자녀관계	= 0.57*부모사회경제지위 (7.61***)		0.09
부모관여	= 0.20*부모-자녀관계 + 0.48*부모사회경제지위 (3.39***) (3.44***)		0.78
자아개념	= 0.49*부모자녀관계 + 0.24*부모사회경제지위 (10.45***) (2.87**)		0.20
자기학습량	= 0.46*부모관여 + 0.15*자아개념 (2.74***) (3.94***)		0.08
학업성취	= 0.10*부모-자녀관계 + 0.61*부모관여 + 0.12*자기학습량 (3.05**) (3.24***) (6.61***)		0.38

\*\* $p < .01$ , \*\*\* $p < .001$ (양측검정)

취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여는 자기학습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의 가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자기학습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위변인과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부모관여 혹은 자아개념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자기학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관여로 그 크기는 1.04로 나타났다. 자기학습량도 0.30 정도의 크기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sup>.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자녀관계, 부모관여,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관여와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

3) 이러한 계수값의 비교는 비표준화 계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표준화계수를 써야만 가능하다(Bollen, 1989). 그러나 표준화 계수를 구해도 거의 비표준화 계수값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표준화 계수값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표준화 계수값의 결과는 부록에 소개하였다.

고 있다. 자아개념은 자기학습량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관여는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이외에 자기학습량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부모관여이다. 그러나 그 크기는 0.61로 중학생의 경우가 1.04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작아졌다.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0.12로 중학생의 경우가 0.30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작아졌다. 한편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0.10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학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크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 학업성취에 부모관여나 자기학습량이 미치는 영향은 학업성취를 중학생의 경우 31%, 고등학생의 경우 38%정도 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지능이나 학교변인이 빠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는 각 잠재변인들이 미치는 직접적 효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즉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에 이들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매개변인을 통하여 각각의 잠재변인들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계산하고, 거기에 직접효과를 더한 총효과를 계산한 결과가 <표 5>이다.

각 잠재변인들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한 총효과를 기준으로 먼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표 5> 각 잠재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중학생			고등학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업성취 ←	부모사회경제지위		0.10	0.10		0.46	0.46
	부모-자녀관계		0.03	0.03	0.10	0.14	0.24
	부모관여	1.04	0.01	1.05	0.61	0.06	0.67
	자아개념		0.04	0.04		0.02	0.02
	자기학습량	0.30		0.30	0.12		0.12
자기학습량 ←	부모사회경제지위		0.33	0.33		0.35	0.35
	부모-자녀관계		0.09	0.09		0.17	0.17
	부모관여	0.25		0.25	0.46		0.46
	자아개념	0.14		0.14	0.15		0.15
자아개념 ←	부모사회경제지위	0.31	0.33	0.64	0.24	0.28	0.52
	부모-자녀관계	0.35		0.35	0.49		0.49
부모관여 ←	부모사회경제지위	0.82	0.16	0.98	0.48	0.11	0.59
	부모-자녀관계	0.17		0.17	0.20		0.20
부모-자녀관계 ←	부모사회경제지위	0.93		0.93	0.57		0.57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에 미치는 변인들을 보면 부모관여가 1.05로 여타 변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다음으로는 자기학습량 변인이 0.30의 크기로 주요하게 나타난다. 이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0.10의 크기, 부모-자녀관계는 변인은 0.03의 크기, 자아개념은 0.04의 크기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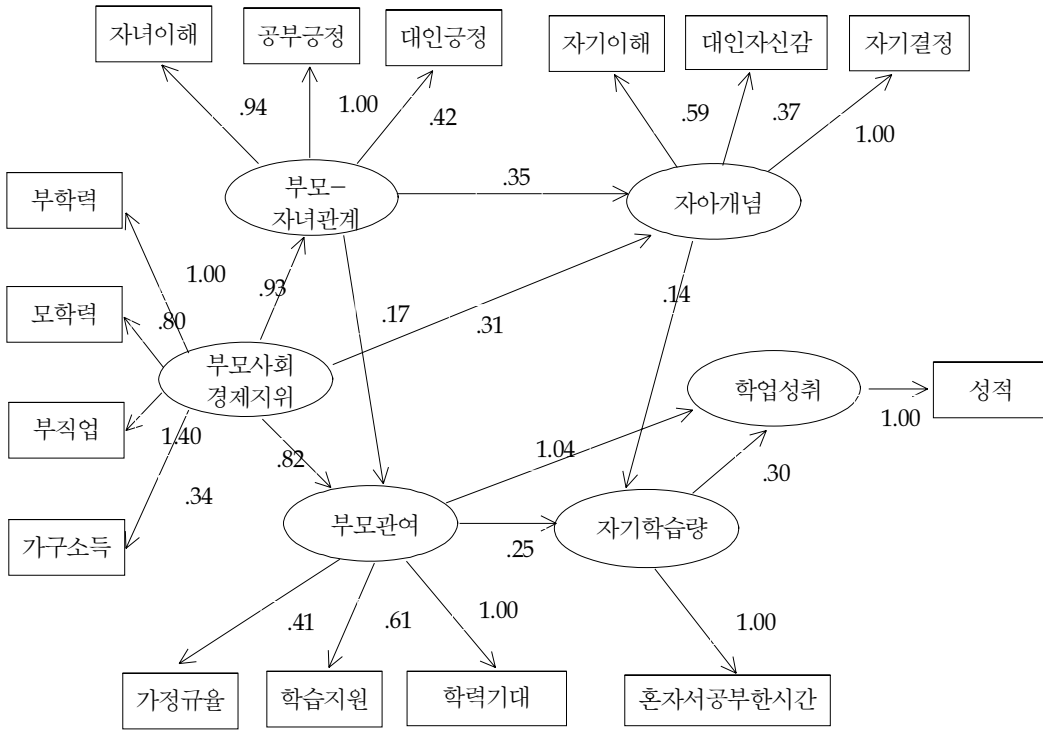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관여의 총효과는 0.67로 중학생에 비해 크게 줄고 있고, 자기학습량의 총효과도 0.12로 크게 줄고 있다. 반면에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효과는 0.46으로 중학생의 0.10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총효과도 0.24로 중학생의 0.03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학습량에 미치는 각 잠재변인들의 영향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관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관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아개념과 부모-자녀관계도 자기학습량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학습량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배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관계이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자녀관계가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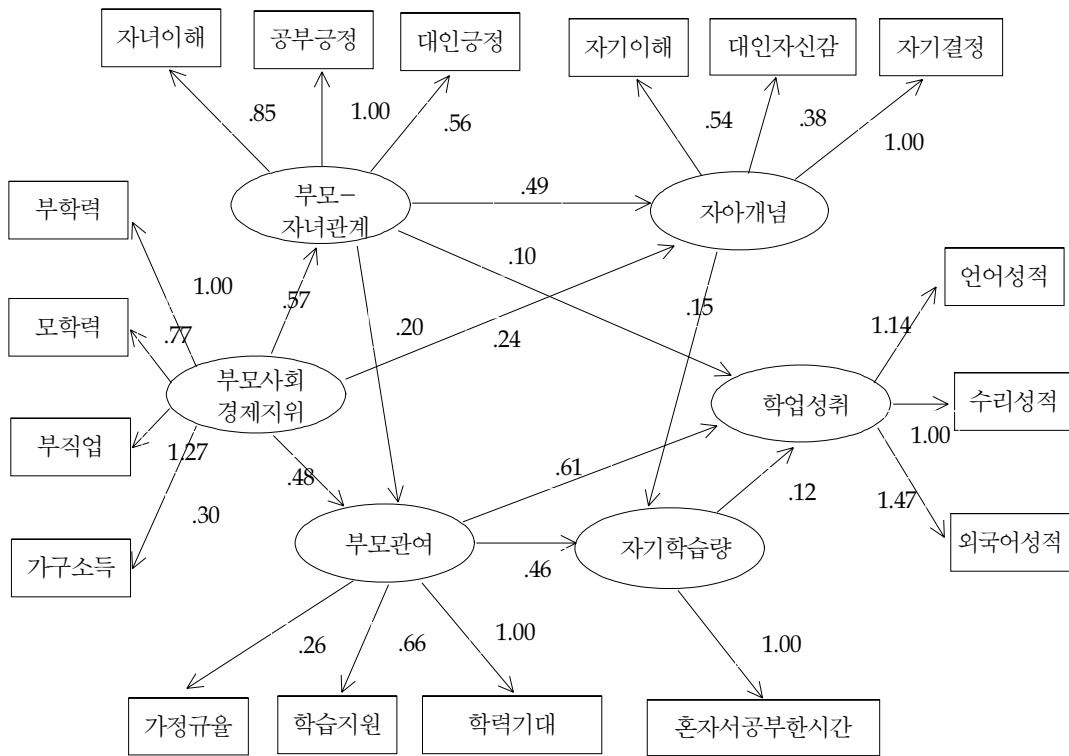
부모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이 더 많아진다. 가정 심리환경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작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 각 잠재변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고등학생 시절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자아개념의 형성이나, 자기학습량의 결정에 미치는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고등학생단계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게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구조모형 분석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와 [그림 3]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나타난 경로는 앞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경로는 <표 3>과 <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이다.



Chi-Square 256.16, df 74, P-value .00000, RNSEA .041

[그림 2] 중학생 최종 추정 모형



Chi-Square 308.56, df 104, P-value .00000, RMSEA .040

[그림 3] 고등학생 최종 모형 추정

## V.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가정배경과 자아개념, 그리고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라는 심리적 과정변인, 자아개념, 자기학습량,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도출하였고, 실제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과 간명성을 충족하는 최적의 경로모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생의 가정배경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가정의 과정변인과 자아개념, 자기학습량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고, 심리적 과정변인은 각각 자아개념과 자기학습량을 매개로 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영향의 크기와 영향 관계는 중·고생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연구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 고생 모두에서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자녀관계, 부모관여, 자아개념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변인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영희, 2002; 김일혁, 2005)와 일치하는 것이다. 지위변인이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과 개인특성 변인인 자아개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의 중요성과 자아개념이나 학습시간량과 같은 학생 개인의 특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학교나 지역사회 단위로 사회경제적 지위수준이 낮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조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총 효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져도 여전히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위수준의 차가 누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한 것처럼 중·고생 모두 부모-자녀관계(윤경희, 2003; 김광웅과 문수경, 2005; Bornstein & Bradley, 2003, 김광웅, 문수경, 2005 재인용; Brody et al., 1995)와 부모관여(김일혁, 2005; 김재철, 2004; 김충희, 2003; Brody et

al., 1995; Crane, 2001; Jeorge & Kaplan, 1998)에 비교적 높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를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자녀의 공부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에 모두 지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관여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지위변인이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관여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2002) 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자녀관계가 돈독할 때 부모가 학생의 공부에도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과정 변인인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는 학업성취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없었다. 우선 심리적 과정변인의 하나인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주는 효과의 크기는 중학생의 경우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과도 작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직접효과도 있고 간접효과까지 합치면 유의하게 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학년에서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녀들이 느끼게 하여 부모-자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관여는 중고생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정규율을 통해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고, 학습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자녀에 대한 포부를 가질 때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생 단계에서도 부모가 적절한 관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심리적 과정변인인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관여는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모관여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컸다. 자녀의 학업성취에는 심리적인 부모-자녀관계보다는 직접적인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 전체는 지위변인보다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과정변인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김영희, 2002; 김일혁, 2005; 문은식, 김충희, 2003; 윤경희, 2001; 윤경희, 김경희, 2003; 한충효, 1984; 황혜자, 최윤희, 2003; Crane, 2001; Dave, 1963; Kellaghan, 1977; Simpson & Troost, 1982)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지도하는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학습을 도와주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며 자녀의 행동에 일관적인 한계를 그어주는 특징을 발견했다(Okpala, Okapala, & Smith, 2001). 따라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이 지위변인보다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정보는 지위환경이 낮은 가정에서도 자녀를 심리적인 차원으로 충분히 지원해줌으로써 지위환경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과정변인의 학년 수준별 영향 정도가 달랐는데, 중학생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도 가정의 지위변인보다 우월하게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특성 변인인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학습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의 크기는 여타의 변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 변인이 일반적 자아개념과 가까워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Shavelson & Bolus, 1982; Song & Hattie, 1984)에 의하면 학업자아 개념이 일반자아개념보다 학업성취를 더 잘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관여가 자아개념을 매개로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Gonzalez-Pienda 등(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정확히 학업 자아개념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부모의 지위변인과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면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자아개념은 자기주도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부모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자기학습량은 중고생 모두에게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Frederick & Walberg, 1980; Singh 외, 2002)과 일치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자기학습량은 학원이나 학교 공부 시간 이외에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측면과 외부에서 시켜서 하는 시간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자기주도성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타인의 강제성도 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교육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사교육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시간을 늘려 학습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가 고등학생보다 자기학습량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다. 여



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나 학원 공부시간 등이 많아지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 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분산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을지라도, 공부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 공부시간량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생 설문 자료와는 달리 가구설문 및 교사 설문이 이루어져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업성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특히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을 부모관여와 부모-자녀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효과에 대한 정보 역시 교육당사자들에게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KEEP 자료에만 근거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이 엄격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거친 도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본 연구가 제시한 학업성취 모형의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능, 학교 간 차이 등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변인 간 관계 모형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통계적 근거를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자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화모델이 아님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강정구 (1986).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구병두 (1989).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대한 Meta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광웅, 문수경(2005). 부모-청소년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 71-84.
- 김아영, 조영미 (2001).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과 동기 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15, 121-138.
- 김영희 (2002).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적 요인인가 또는 가족구조인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1, 357-365.
- 김일혁 (2005). 고등학생의 가정배경 요인과 수학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재철 (2004). 가정환경, 학습태도, 수학성적 및 수학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 1-22.
- 노국향, 최미숙, 최승현, 박경미, 신동희 (2001). PISA 2000 평가 결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E 2001-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은식, 김중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 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 271-288.
-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성기선 (1997).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효과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7, 189-204.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양혜승 (1973).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윤경희 (2001). 학업성취결정 모형의 종단적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11, 137-162.
- 윤경희 (2003).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 331-353.

- 윤경희, 김경희 (2003).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12, 5-25.
- 정영민 (1984). 텔레비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시청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 연구*, 8, 41-56.
- 한충효 (1984). 가정의 환경적 과정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승희 (1999). 가정환경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황혜자, 최윤화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 285-304.
- 허형, 황인창, 황의록(1974). 가정환경의 제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Bollen, K. A. (1989). *Structure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 Brody, G. H., Stoneman, Z., & Flor, D. (1995). Linking family process and academic competence among rural African American youth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67-579.
- Byrne, B. M. (1986). Self-concept/academic achievement relation: An investigation of dimensionality, stability, and causalit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173-186.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ane, J. (2001). Effects of home environment, SES, and maternal test scores on mathematics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 305-314.
- Dave, R. (1963).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Deslandes, R., Royer, E., Turcotte, D., & Bertrand, R. (1997). School achievement at the secondary level: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and parent involvement in schooling.

- McGill Journal of Education*, 32, 191-207.
- George, R., & Kaplan, D. (1988). A structural model of parent and teacher influence on science attitudes of eight graders: Evidence from NELS: 88. John Wiley & Sons, Inc. *Sci Ed* 82, 93-109.
- Gonzalez-Pienda, J. N., Nunez, J. C., Gonzalez-Pumariega, S., Alvarez, L., Roces, C., & Garcia, M. (20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arental involvement, motivational and aptitudin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0, 257-287.
- Hansford, B. C., & Hattie, J. A. (1982).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 123-142.
- Hoover-Dempsey, K. V., Battiato, A. C., Walker, J. M. T., Reed, R. P., Dejong, J. M., & Jones, K. P. (2001). Parental involvement in homework. *Educational Psychologist*, 36, 195-209.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c.
- Keith, T. Z., & Keith, P. B. (1993). Does parental involvement affect eighth-grade student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ational 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22, 474-496.
- Kellaghan, T. (1977).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lastic achievement in a disadvantaged popul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754-760.
- Ma, X., & Klinger, A. (2000).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of student and school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5, 41-55.
- Marlone, T. W., & Lepper, M. (1995). Making learning fun. In A. Snow & M. J. Farr(Eds.), *Aptitude, learning, and instruction. Vol. 3.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 analyses* (pp. 223-253). Hillsdale, NJ: Erlbaum.
- Marsh, H. W. (1990). Causal ordering of academic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 multivariate, longitudinal pane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646-656.
- Okapala, C. O., Okapala, A. O., & Smith, F. E. (2001). Parental involvement, instructional expenditures, family socioeconomic attributes, and student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 110-115.
- Purkey, W. W. (1971).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Sal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 Simpson, R. D., & Troost, K. M. (1982). Influences on commitment to and learning of science among adolescent students. *Science Education*, 66, 763-781.
- Singh, K., Granville, M., & Dika, S. (2002).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effect of motivation, interest,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 323-332.
- Song, I. S., & Hattie, J. A. (1984).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 causa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269-1281.

\* 논문접수 2005년 11월 14일 / 1차 심사 2006년 2월 15일 / 2차 심사 2006년 2월 28일

\* 손진희: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 분야는 상담자교육, 청소년상담, 상담과정연구 등이다.

\* e-mail: ahnkook@krivet.re.kr

\* 김안국: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노동경제학, 직업교육훈련과 사회경제정책, 자격제도 등이다.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studying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Son Jin-Hee\* · Kim Ahn-K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s' SES and parents'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were divided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which showed psychological aspects and 'parents involvement' which showed parents' involvement in child's academic area. This study explored the predictive and mediative role of the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i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study analysed 1,528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1,224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by utilizing the data of 2004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parents' SES had mediated b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s' involvement, self concept, self-directed learning(studying) time rather than a direct effect on the child's academic achievement. 2)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in family had a larger effect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an the parents' SES. 3) the parents' involvement among the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was most influential factors on both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specially in term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parents' involvement had a larger effect. 4) self-concept had mediated by the self-directed learning(studying) time rather than a direct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5) self-directed learning(studying) time had an effect on both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had a larger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Finally some limitations of this

\* Department of Counseling & Industrial Psychology, Sunmoon University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tudy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study.

Key words: Home background, parents' involvement,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concept  
studying time, academic achievement